

전 남

장흥 식품산단 수도권 기업 몰려온다

애니원F&C 등 식품업체 5곳 241억원 투자협약

전남도가 특화산업단지로 지정 운영하고 있는 장흥 바이오 식품산단에 수도권 식품기업이 잇따라 동지를 틈나.

전남도는 21일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박준영 도지사와 이병출 장흥군수, (주)애니원F&C 등 5개 수도권 기업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41억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투자협약에 따라 애니원F&C(대표이사 봉종욱)는 장흥 바이오 식품 일 반산단 2만㎡ 부지에 2014년까지 80 억원을 투자해 커피 원재료 및 전남

친환경 과일을 활용한 시럽 제조공장을 설치한다.

세계적 시럽회사인 프랑스 '1888'의 한국 독점판매권을 가진 애니원F&C는 전국에 43개의 직영점 및 가맹점을 가진 외산전문기업으로, 장흥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단킨도너츠 등 프랜차이즈 업체와 롯데백화점 등 대형 매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전남에서 생산되는 딸기·무화과·키위 등 친환경과일을 활용한 커피 시럽 등을 만들어 전국에 공급할 계획이어서 전남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새로운 제품 개발로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송진유통과 산원F&B도 장흥에 각각 50억원(부지 7000㎡)과 31억원(부지 7000㎡)을 투자해 베이컨 떡볶이 등 쌀 가공식품과 돈가스 생산공장을 건립한다.

테라에코와 우성메이들프트는 장흥 바이오 식품산단 7000㎡의 부지에 35억원과 45억원을 투자한다.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이전받은 분리기 기술 활용해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배초향(방아잎)에서 추출한 황산화 물질을 원료

로 해 기능성 음료 및 기초화장품, 고 기능성 천연염 제품을 생산한다.

두 회사는 전남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생식물을 원료로 해 사업확대라는 측면과 갯벌 천연염을 활용한 기능성 제품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수도권 5개 기업 유치로 302명의 일자리가 새롭게 생길 전망이다"며 "장흥이 전남 식품산업 메카로 부상하는 것은 물론 전남 농수축산물 소비처 확보와 연관산업 발전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농한기 농업기반 정비 2000여명 일자리 창출 농어촌공사 영암지사

한국농어촌공사 영암지사(지사장 하상수)는 농업기반 시설물 정비를 통해 농한기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영암지사는 총 2억17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취약 수리시설물 용·배수로 54km ▲수초제거 3만7810㎡ ▲양배수장 20개소를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농업용수 공급기반 확충과 함께 농한기 유류인력 2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부취재본부=문병선기자 moon@

목포 대양산단 조성 포스코 건설과 협약 내년 3월 공사 시작

목포시 최대 현안 사업 가운데 하나인 대양 일반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된다.

목포시는 그동안 민간자본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최근 국내 도급 순위 3위인 포스코 건설사와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하게 됐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내년 1월 중 대양산단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3월부터 보상과 공사를 동시에 착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포스코 건설에서 사업비와 기술을 제공하고, 목포시는 행정지원에 비롯한 분양을 책임지게 된다.

정족점 시장의 공약인 이 사업은 진입도로와 배수지 건설에 필요한 총사업비 424억원 전액을 국비 지원을 받아 진행한다.

이로 인한 생산 유발효과는 2553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354억원 등 약 40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부가가치와 함께 5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기대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대양산단 조성 사업은 조만간 특수목적법인 설립 지분출자 등에 대한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본격 추진된다"고 밝혔다.

/사취취재본부=임영춘기자 lyc@

목포시의회 '누워서 침뱉기'

목포시의회는 끝없는 추락엔 브레이크가 없는가.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한마디로 의회가 일회용 종이컵만도 못한 대의기관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자신들이 선출한 의장에게 "꼭 바로 해라"는 막말을 퍼붓고, 시정 질의 답변에 나선 시장에게

의 자질과 능력을 거론하는 건 이해되지만 나이를 들먹이는 발언은 부적절했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일각에서는 말꼬리 잡기 식 질의의 진수를 보는 것 같다고 일갈했다.

시의회가 이처럼 갈 길이 험난 하리라는 사실은 이미 9대 의회 원 구성 당시부터 예고됐었다.



고규석

"연세 많아 힘들면 시장 안해야 한다"는 인신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아 막가파식 의회로 전락하는 단초를 제공했다.

특히 통반장 설치 조례를 둘러싼 추태는 "어쩌다 이 지경까지"라는 질타로 이어졌다.

이를 두고 속칭 '떼뺨(?)'에 휘둘러 명분도 없고 절차도 무시한 '누워서 침 뱉기'식 자충수를 쳤다는 자성이 시의회 내부에서도 제기됐다.

시민들은 입법기관이라는 의회 고유 기능을 스스로 짓밟은 처사라는 고언을 쏟아냈다. 또 시장

"나사 빠진 의회"라는 쓴소리는 피레 약일 수 있다. 비운 뒤에 땅이 균여진다는 격언처럼 반면교사로 삼는 게 우선이다.

시민들을 충격에 빠트린 시의회 사태는 향후 시의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한 교훈을 남겼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새해에는 뼈를 깎는 자구의 노력을 통해 화합·소통하는 의회상을 보여주는 것만이 유권자들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의원 배

지에는 그와 같은 시민들의 소망과 기대가 담겨 있음을 되새겨 보길 기대한다.

/yousu@



담양 봉산딸기 본격 출하

담양군 봉산딸기 유통사업단(대표 박상오) 직원들이 21일 공동선별장에서 딸기 선별과 포장작업을 하고 있다. 친환경농업 재배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담양 봉산딸기'는 현재 53 농가에서 연간 400t을 생산, 27억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담양군 제공)

전남도 위생업무 평가 해남군 2분야 우수기관

해남군이 전남도 주관 '2011년 위생관리업무 종합평가'에서 음식문화 개선, 공중위생 등 2개 분야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군은 남도음식문화개선분야에서 평가대상인 36개 항목 중 좋은식단 모형 책자 및 음식노트 보급, 먹거리지도 제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공중위생분야도 각종 스포츠행사, 친절서비스 교육 및 간담회, 미용명장 초빙 선진미용기술 세미나가 수범 사례로 뽑혔다. 특히 음식문화개선분야에서는 4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기관 및 유공자 표창, 상사업비 1500만원을 지원받게 됐다.

해남군 관계자는 "공직자 1음식점 담당 전문통보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 실시해 음식문화개선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사취취재본부=박희석기자 dia@

Advertisement for KJHR (www.kjhr.com) featuring a knight on a horse and text: '난청은 물론 이명까지 -젠 톤- 말 소리가 잘 안들리다구요? 국제보청기'. Includes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상무랜드공인중개사' (Sangmu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and contact info.

Advertisement for '가은 부동산' (Ga-eun Real Estate) listing '일곡동 토지 매매 최고 "병원" 부지' and '상무지구 빌딩 매매'.

Advertisement for '대인동삼일부동산' (Da-in-dong Sam-il Real Estate) listing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Advertisement for '호남랜드공인중개사' (Honnal Land Certified Real Estate Agent) listing '오피스텔 상가' and '투자 및 사업용 토지'.

Advertisement for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Asset Korea) listing various real estate services, contact info, and a table of properties for sale.